

재일코리안 사회의 한통련 통일마당과 원코리아페스티벌 통일문화운동 고찰*

김 태 영**

임 영 언***

(e-mail: taeyoung@gwnu.ac.kr · yimye@hanmail.net)

< 목 차 >

1. 서론
2. 기존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
3. 재일코리안 사회의 통일운동과 문화운동 전개과정
 - 3.1. 한통련의 한국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으로서의 '통일마당'
 - 3.2. 6·15 남북공동선언과 NPO법인 삼천리철도의 통일운동
4. 한통련의 통일마당과 원코리아페스티벌의 통일운동의 성격 비교
5.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 在日コリアン社会(Zainichi Korean Society)、統一運動(Unification Movement)、韓統連(Hantongryeon)、ワン코리아フェスティバル(One Korea Festival)、統一文化運動(Unification Cultural Movement)

1. 서론

글로벌시대 전 세계의 한민족은 170개국 약 700만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해외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북한 인구를 합쳐 약 10%의 비율에 해당되는 한국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국 현지에서 유일하게 한국적, 혹은 조선적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재일동포라 할 수 있다. 이렇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교수(제1저자).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교신저자).

게 재일동포들이 한국적(조선적)을 현지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1945년 이후 재일의 역사는 남북분단에 따른 민족차별 투쟁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이유들은 조국이 해방되었지만 일제식민지배 하에서의 전후보상처리 미비, 반일정책의 지속, 일본의 소수민족차별 등이 중요한 요인들에 해당된다. 특히 재일동포들에게는 남북분단이후 1950년 한국전쟁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에 따른 국적상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1980년대 지문날인거부를 필두로 하여 민족차별과 외국인등록법저지투쟁 등 식민지 이전의 역사와 해방 이후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의 관장이신 강덕상선생은 이를 “조국은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재일동포의 역사는 식민지배가 계속되고 있다.”¹⁾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차별과 동화정책은 일본으로의 귀속의식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일본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일동포의 한국적유지는 그들의 지지성향에 따라 각각의 모국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을 드러내 왔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은 모국 귀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남북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 1959년부터 시작된 북송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시작된 모국고향방문은 정치적 상황과 모국빈곤의 현실을 절감하고 귀국선택보다는 일본영주를 통한 모국과의 협력의 길을 선택했다. 재일동포들이 귀화보다 일본영주를 선택한 것은 모국과 고향친척들에게 빈곤탈출이 재일동포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알고 모국에 대한 ‘금의환향’의 정신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방과 더불어 남북분단이 된 상황에서 재일동포 사회의 권리옹호, 민족동질성 회복, 귀국준비를 위해 결성된 조직들이 모국 남북분단에 의한 이념대립으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도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재일동포사회는 북한을 유일한 조국으로 지지하는 총련과 한국의 국시를 준수하는 민단이라는 양진영으로 갈리면서 양진영의 분열이 더욱 선명하게 되었다.²⁾

1) 2015년 2월 일본현지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 관장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이러한 1945년 전후 동서냉전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재일동포 사회의 정치적 조직적 대립이 지속적으로 구축되면서 총련과 민단은 지지정부의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요청에 따라 대응해 온 것이 오늘날 재일코리안 사회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구축된 재일동포 사회는 그들 간의 대립과 반복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59년 총련의 귀국운동과 민단의 북송반대운동,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총련의 한국적의 ‘협정영주권’ 취득반대운동 등 이러한 대립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모국은 재일동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리전쟁으로 내몰렸고 재일동포 사회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한층 강화시켜왔다. 결국 모국에서 남북분단에 의한 민족의 분열은 재일동포 사회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분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통합과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일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1945년 해방이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전개된 통일문화운동에 대한 기본 이념과 그 과정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민단과 총련의 통일에 대한 기본이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연장선상에서 한통련의 ‘통일마당’ 축제, 문화운동으로서 원코리아 페스티벌, 6·15 남북공동선언과 NPO법인 삼천리철도의 통일운동 등 재일코리안의 통일문화운동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재일코리안 통일문화운동에 대한 기존연구는 그동안 재일코리안 축제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온 분야로 대표적인 원코리아페스티벌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통련의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사상 이념적 측면에서 북한사상에 경도되어 한국에 대해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다루어 온 논문들 중에서도 원코리아페스티벌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2) 이 논문에서 재일동포와 재일코리안은 고유한 의미의 단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재일동포를 사용하였고 재일동포 사회 전체를 나타낼 때는 재일코리안으로 사용하였다.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85년 이래 일본에서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주도해 온 본인인 정갑수(2015)의 저서 “하나: 원코리아 도초 회고록”은 자서전적인 책으로 그가 원코리아페스티벌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와 30년간의 활동내역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코리아페스티벌이 배타적인 일본사회에서 재일코리안의 생활과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남북평화통일과 세계시민으로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한 통일운동 전개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연구서라기보다는 한중일 동아시아3국의 불안정한 정세가운데 재일코리안의 역할을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이이다 쓰요시(飯田剛史, 2015)는 “재일코리안의 ‘축제’와 공공화”라는 논문에서 원코리아페스티벌 등 재일코리안 3대 축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바 있다. 다음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축제는 한중일 코리안의 민족적 연대를 통한 전 세계 코리안 연대를 목적으로 일본문화의 대항성에 의한 민족으로서의 공통성에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화운동의 배경에는 글로벌시대 일본사회의 다원적 문화전개의 영역으로서 공공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가운데 그는 통일문화운동이 일본사회의 관용성과 더불어 자민족중심주의적 배타주의의 등장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표 1> 재일코리안 통일문화운동의 특성 비교³⁾

분류	이쿠노 민족문화제	원코리아페스티벌	시텐노지 왔소
개시년도	1983년	1985년	1990년
참가자	이쿠노쿠 재일 코리안	재일코리안 프로, 세미프로 예능 관계자	재일코리안 기업가, 일본문화인, 재일코리안 불문티어
장소	이쿠노쿠 내 교정	오사카성 야외 음악당 등	다니마치수지, 사천왕사
내용	농악퍼레이드, 민족무용, 연극, 유희	재즈, 부르스, 무용, 연극, 영화	도래인, 조선사절단 퍼레이드, 문화교류 세레머니 등

3) 飯田剛史(2002)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世界思想社, p.29를 중심으로 필자작성.

메시지	재일 청년 세대들에게 민족문화에 의한 연대의식, 정체성 형성 호소	재일 청년들에게 유행 문화에 의한 하나(통일)의 호소	고대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람과 문화교류를 표현하여 재일코리안에게 자부심과 동아시아에 열린 오사카의 모습을 호소
공통성	1980년대 창시, 내용의 창조성(비전승성), 비종교성(세속성), 재일인권운동시기, 재일경제력 향상시기, 공공화, 새로운 오사카축제로서 침투		

기타 원코리아페스티벌과 축제에 관한 한국 국내에서의 연구는 이종원의(2000), 진희관(2001), 정병호(2002), 손미경(2011), 지충남(2013, 2015)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내용은 대부분이 글로벌시대 축제와 다문화공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축제자체의 분석보다는 초기 재일코리안의 통일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한통련의 통일마당과 원코리아페스티벌의 통일문화운동을 상호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원코리아페스티벌 축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1970년대에 전개된 한통련의 ‘통일마당 축제’와 2000년대에 전개된 ‘삼천리철도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원코리아페스티벌과 재일코리안의 통일문화운동의 연구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한통련의 통일문화운동과 이후 전개된 재일코리안 사회의 통일문화운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재일코리안 사회의 통일운동과 문화운동 전개과정

3.1. 한통련의 한국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으로서의 ‘통일마당’

먼저 한통련이라는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1973년 8월에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

국민회의(한민통)을 1989년 2월에 조직을 개편하여 탄생하였다.⁴⁾ 해방이후 한민통의 기관지인 ‘민족시보’나 단체의 활동을 통해 한민통의 통일운동이나 한통련의 통일운동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⁵⁾

한민통은 원래 한국의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민단의 민주화 그룹과 한일청년동맹(한청동)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한민통은 1960년 결성된 이후 민단 내 재일동포 권익옹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민단조직의 자주화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1961년 한국에서 군사독재정권의 탄생을 계기로 민단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한민통은 결성초기 1968년 외국인학교법안 폐지, 1969년 출입국관리법안 폐지 등 재일동포사회의 권익옹호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반독재 민주화투쟁이라는 정치적인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한민통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지지와 공동대회 개최, 1972년 10월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투쟁, 1977년 해외한국인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민족통일한국인연합(한민련)의 결성, 1989년 한통련의 발족, 그리고 1990년 11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한통련은 1998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으로 자주평화통일의 기본정신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한통련의 기본정신에 힘입어 남북각료회의 개최, 이산가족재회, 경제교류협력 추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군사경계선의 통일육로 개설,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소떼방북, 금강산관광 실현,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 간 민간 경제협력이 크게 진전되었다.

한통련은 일본 내 통일운동으로서 1994년부터 ‘통일마당’ 축제를 일본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해 오고 있다.⁶⁾ 2015년 8월 30일에는 22회째의 ‘통일마당’

4)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http://chuo.korea-htr.org/history.shtml>(검색일: 2015년 11월 3일).

5) 주간한국뉴스: <http://chuo.korea-htr.org/>(검색일: 2015년 11월 3일). 민족시보사는 1972년 ‘민족시보’를 창간한 이래 한국 민중의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재일동포의 권익옹호, 한일민중의 연대 및 우호를 지향하는 정보를 발신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에 대응하여 뉴스레터 ‘주간한국뉴스’를 창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한통련이 주최한 통일마당축제는 1994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 22회째로 2015년 8월 30일 “진후 70년, 한일조약50년, 지금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통일, 민족화해, 평화로운 아시아, 차별 없는 사회”를 주제로 아라카와쿠 소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통일마당 도료: <http://chuo.korea-htr.org/>(검

이 도쿄에서, 제6회 하나마당 아мага사키(尼ヶ崎)가 효고 현(兵庫縣)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재일동포와 일본시민들이 다수 참가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하나마당’의 의미는 광장(마당)에서 모두 하나가 되자는 뜻으로 무대에서는 한청의 아리랑프로젝트와 사물놀이, 밴드연주, 어린이 댄스, 조선무용, 중국사자 춤, 마린바 연주 등이 펼쳐졌다. 또한 민단의 한청과 총련의 조청이 공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재일청년의 입장에서 호소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유명가수나 영화배우가 게스트가 출연하였고 축제 장소에서는 한국요리와 민족요리의 포장마차, 재일동포 통일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판넬사진이 전시되었다.

1973년부터 시작된 한통련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 구출운동 등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기여한 측면도 많았지만 반국가단체로 몰려 자유왕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한통련은 통일운동의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남북연방제나 ‘선민주·후통일’을 주장하여 그동안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운동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한통련이 ‘친북단체’라는 의혹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 1970년대 당시 한국의 독재 군사정권은 민단체 재일동포와 민단조직을 ‘반공’의 방과제로 삼으려고 시도하여 민단 내 비판세력이나 저항세력을 북한이나 총련의 앞잡이로서 몰아 민단으로부터 축출시키기도 하였다.⁷⁾

한통련은 민단체 재일동포가 통일운동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으로서 분단될 수 없는 민족성을 내세워 이념이나 제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통련의 통일운동은 남북분단의 이념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고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도 민단체 재일동포 2-3세들에게 이국에서 새로운 ‘분단’을 확대시켰다는 견해도 있다.⁸⁾

한통련의 하부조직인 한청(재일한국인청년)은 1960년 10월 이승만정권의 어용단체로서 결성되어 ‘대한청년단’으로 개편하였다. 한통련과 마찬가지로 재일

색일: 2015년 11월 3일).

7) 民団系在日朝鮮人の韓国民主化運動:

http://www.tufs.ac.jp/common/is/kyoumu/pg/pdf/190_CHO_KIEUN_youshi.pdf#search(검색일: 2015년 11월 3일).

8) 민단체와 총련계 재일코리안에 대한 연구는 임영언외(2013)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본 북한-총련-일본 관계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제1호, pp.279-304. 그리고 임영언외(2013) 「재일코리안의 사회문화운동 전개과정 고찰: 사회운동에서 문화운동으로」 『한국일본문화학보』 제58집, pp.341-363. 참조.

코리아 민주화운동과 권리획득운동을 병행하였다. 왜냐하면 한청은 본질적으로 이 두 운동이 동일선상에 있는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청을 중심으로 한 이들 운동은 민단체 재일동포 2-3세들에게 민족성을 일깨우는 운동으로 전개되어 민족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각하게 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조국통일을 위해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청의 한국민주화운동은 재일코리아인들이 민족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나 조국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의지가 투영된 조국지향의 운동과 동시에 일본사회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가기 위한 정주지향의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한청은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같은 해 7월 임수경 씨의 방북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한통련의 주최로 일본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통일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홍보하는 연극과 마당극, 남북단체와의 화합, 지역협의회 결성 등 민족화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3.2. 6·15 남북공동선언과 NPO법인 삼천리철도의 통일운동

2000년 선포된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은 남북동포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던 재외동포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다. 조국분단의 아픔을 경험해 온 재일동포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남북공동선언 직후 당시 민단의 김재숙단장은 역사적 남북수뇌의 회담을 맞이하여 총련단체에 협력제의를 보냈다.⁹⁾

당시 민단의 김재숙단장은 “나는 오늘 성사된 남북수뇌회담을 재일동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의 획기적인 계기로 받아들이고 이번 공동선언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21세기 동포사회의 통일실현을 위해 총련과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리고 8월 24일에는 총련은 민단에 4개항의 제안서를 보냈다. 총련이 제안한 4개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이 모여 공동행사 개최, 둘째, 상호부조활동의 공동협력 전개, 셋째, 민족성 계승 활동에 대한 공동논의, 넷째, 총련과 민단의 화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 기구 설치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4개항의 공동제안은 민단과 총련 간 양조직의 교류가 몇 번

9) 希望は鉄馬から～分断の痛みを共にして来た在日は、平和統一の歩みを共にする権利がある:
<http://www.sanzenri.gr.jp/library/gideok-02-k.pdf#search='gideok02'>(검색일: 2015년 11월 3일).

이루어진 했지만 그 이상의 협력운동으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결국 양조직의 주체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모국 문제에 대하여 총련과 민단이 각각 지지하는 모국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독립적인 조직이라는 점만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부의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재일코리아인들이 독자적인 차원에서 통일운동 전개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가 'NPO법인 삼천리 철도'이다. 따라서 NPO법인 삼천리 철도는 당시 남북통일 기운의 공간에서 결성되었지만 양 조직의 협의에 따라 조직된 단체는 아니었다. 법인 이사장은 재일코리아인 도상태회장으로 사무실은 일본 아이치 현 도요하시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총66명, 임원은 총18명으로 2001년 6월 6일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설립취지는 재외동포들이 남북공동선언에 대응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비무장지대의 철도를 재외동포들의 손으로 건설하자는 운동이었다. 구체적으로 남북분단은 단순한 민족분단문제가 아니고 동서냉전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이며 조국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손을 잡고 통일의 상징인 끊어진 남북철도 연결을 완성하자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재일동포는 물론이고 실향민으로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민족통일과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서 비무장지대를 고향으로 생각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삼천리 철도는 이미 공표된 철도 미연결구간 거리인 경의선(서울-신의주) 20km, 경원선(서울-원산) 31km, 금강산선 72km, 동해북부선 132km 등 4개 노선 총 255km에 달하는 철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먼저 경의선과 비무장지대 4km의 철도연결을 추진하였다.

당시 NPO법인 삼천리 철도가 지향하는 기본 통일이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양쪽을 모국으로 인정하는 해외 거주자들이 분단조국의 한쪽만을 조국으로 인정하고 한쪽은 적으로 간주해 온 반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둘째, 삼천리 철도는 남북통일 운동에 재외동포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재일동포들은 남북 38도선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조국의 쌍방과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여 조국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일동포 스스로가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통일운동의 실천으로서 6·25전쟁 시 파괴된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연결에 한정하여 통일운동을 전개한다. 삼천리의 통일운동은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남북교류 공간의 비약적인 확대와 이로 인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미래의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표 2> NPO법인 삼천리 철도의 주요 활동내용¹⁰⁾

일자	주요 내용
2000.6.15	남북공동선언
2000.7.15	삼천리철도 준비 위원회 발족
2000.9.30	‘삼천리철도’ 발족회
2001.3.1	철도건설모금을 개시
2001.6.6	NPO법인 삼천리 철도 설립
2001.6.17	남북 공동 선언 1주년 기념집회 개최
2001.10.27	NPO법인삼천리철도 발족식
2002.3.20	제1차 남북철도연결자금전달(남측) 및 JSA 투어
2002.3.21	한국 통일부를 방문, 엔화 680만엔 전달
2002.6.16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집회 개최
2002.12.5	제1차 남북철도연결자금전달(북측) 북한 내각을 방문, 엔화 680만엔 전달
2003.3.1	제1차 모금 전달 방조보고집회 개최
2003.6.7	남북공동선언 3주년 기념집회 개최
2004.5.7	북한 용천열차 사고 의연금 50만엔 전달
2004.6.12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집회 개최
2004.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기념우리민족대회’ 참가(남측)
2005.6.12	남북공동선언 5주년기념집회 개최
2006.4.21	서울에서 육로로 개성으로. 묘목지원사업 참가.
2006.4.19	한국 민화협에 묘목지원(1천만원) 전달.
2006.6.12	남북공동선언 5주년기념집회 개최
2006.10.14	전 한국통일부 정세현 장관 ‘동북아시아 평화와 일본’ 강연회 개최

그러면 삼천리철도는 한반도 통일운동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은 2000년 이후 삼천리철도의 주요활동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삼천리철도는 2000년 이후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까지 비교적 활발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구

10) NPO법인 삼천리 철도 경력: <http://www.sanzenri.gr.jp/houjin/sanzenri.pdf>(검색일: 2015년 11월 4일)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작성.

체적인 활동으로는 비무장지대 남북철도의 연결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건설자금으로서 기부금 모금활동, 철도건설 시 다양한 활동의 물심양면에서 직접적인 참여, 재외동포 등 많은 사람들이 철도건설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여 세계평화기념비 건립추진활동 등이다.

삼천리철도는 재일동포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에 따라 남북양쪽을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남북정세의 높은 파고를 넘지는 못했다. 2000년 이후 재일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남북통일이 무르익은 적기에 출현한 야심찬 통일운동이었지만 남북정세변화의 굴곡을 극복하지 못하고 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이다. 삼천리철도는 재일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남북이념을 초월한 통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지만 결국 조국의 분단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코리안들에게 남북이념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케 하는 통일운동에 머물고 말았다.

4. 한통련의 통일마당과 원코리아페스티벌의 통일운동의 성격 비교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일본에서 재일동포들이 1985년 통일(원코리아)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기 위하여 일본 내 재일동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재일동포의 입장에서 재일동포가 먼저 하나가 되어 원코리아의 상징으로서 성장하고 남북과 재외동포의 교량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원코리아의 실현에 공헌하고 동시에 세계시민이라는 아시아시민 창출을 위한 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비전을 지향해왔다.¹¹⁾

따라서 원코리아페스티벌의 기본이념과 비전은 “전후 분단된 코리아의 남북 대립이 초래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가정에서 코리아의 평화통일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동아시아의 시민적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창출과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선언하였다.

1985년 이후 오랜 공익활동을 통해 2012년부터 일본정부로부터 공익재단으

11) 원코리아 페스티벌 30주년을 맞이하여: <http://hana.wwonekorea.com/>(검색일: 2015년 11월 3일).

로 인가받았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의 구체적인 활동은 일본 국내, 모국, 해외로 원코리아페스티벌을 확대 발전시키고 일본시민과 연대하여 일본과 아시아에서의 다문화공생 사회의 실현, 아시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실현,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연구과 개발활동 등을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원코리아페스티벌 개최, 심포지엄, 세미나,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표 3> 원코리아페스티벌의 발자취와 주요 활동내용¹²⁾

연도	주요 활동내용
1985년	해방 4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통일비전의 창조를 위해 ‘원코리아’의 가치를 걸고 ‘8·15(40) 민족·미래·창조페스티벌’을 시작하여 이후 매년 개최.
1987년	아사히신문 국제 면에 조선청년동맹과 한국청년회가 함께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내용 게재.
1990년	‘원코리아페스티벌’로 개칭, 한국 김덕수 사물놀이와 북한 김정규 유네스코직원에 의한 아리랑 합창, 남북공연 실현. 일본경제신문 국제 면에 ‘38도선’에서 남북공동개최만국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제안 소개. ‘아시아공동체’ 지향을 처음으로 제안, 이후 비전으로 발전.
1991년	재일본조선 취주악단과 한국청년회가 함께 공연.
1992년	재일본조선 취주악단의 연주로 김연자 노래 공연.
1993년	한국 어머니 합창단과 총련계 어머니 합창단 공연.
1994년	한국 어머니 합창단과 총련계 어머니 합창단 공연. 제10회부터 동경개최 개시, 이후 매년 오사카와 동경 개최.
1997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 일본에서 NHK다큐멘터리 방송.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탄생한 한국인, 흑인, 스페인으로 구성된 다민족합동공연예술단, ‘WE ARE ONE’을 미국에서 초청, 일본 8개소에서 순회 공연.
1998년	한국 ‘의정부원코리아페스티벌’과 교류 개시. (2005년 의정부원코리아페스티벌 종료).
1999년	이쿠노쿠 코리아타운 개최, 조선제4초급학교, 건국소학교, 금강소학교, 미유키모리소학교민족학급이 합동 퍼레이드, 무대출연. 아사

12) 이 표는 공익재단 원코리아 페스티벌: <http://hana.wwonekorea.com/okf2012/profile.htm>(검색일: 2015년 11월 3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p>허신문 4일 연재 특집, 조선제4초급학교, 건국소학교, 금강소학교, 미유키모리소학교민족학급 선생들에 의한 좌담회 게재.</p>
2000년	<p>‘남북수녀회담환영! 원코리아페스티벌’ 동경 개최, 성명발표(수녀회 담보다 먼저 6월 11일). ‘남북공동선언지지! 원코리아페스티벌’ 오사카 개최(6월 15일). ‘해방55주년 원코리아페스티벌’ 개최(8월 10일). 히가시 오사카 조선중급학교와 건국학교 합창.</p>
2001년	<p>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제로 제1회 ‘원코리아포럼’ 개최. 패널 이종원 릿쿄대학 교수, 윤건차 가나가와대학 교수, 박일 오사카 시립대학 교수, 코디네이터 문경수 리쓰메이칸대학 교수.</p>
2002년	<p>국립민족학박물관 요청에 의해 ‘원코리아페스티벌 IN 민박’ 개최. ‘한일 음식 포럼’ 실시(4월 7일). 오사카시의 요청에 의해 개최장소를 오사카성 공원 태양광장으로 이동. 이후 매년 이 장소에서 개최. 나카노시마(中之島) 중앙공회당 리뉴얼오픈으로 원코리아페스티벌 ‘전야제’ 개최, 영화 ‘夜を賭けて’ 상영회 실시(11월 2일). 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제로 제2회 ‘원코리아포럼’ 개최. 패널 와다하루키 동경대학 명예교수, 이종원 릿쿄대학 교수, 요시다 야스히코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정장연 고마자와대학 교수, 코멘테이터 강인덕 전 한국통일위원장, 조성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집행위원장. 도상태 ‘삼천리철도’대표, 코디네이터 문경수 리쓰메이칸대학 교수.</p>
2003년	<p>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제로 제3회 ‘원코리아포럼’ 개최. 패널 강상중 동경대학 교수, 와다하루키 동경대학 명예교수, 요시다 야스히코 와세다대학 객원교수, 코디네이터 김태명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문화의 날 페스티벌’ 초청 참가.</p>
2004년	<p>특정비영리활동법인 ‘코리아NGO센터’설립, 대표이사에 취임. 중국 북경 ‘동북아시아청년지식인포럼’에 패널로 참가. 중국 연변 ‘연변동북아시아 환경·경제·문화·발전심포지엄’에 패널로 참가.</p>
2005년	<p>‘남북공동선언5주년기념 남북해외공동대회’ (6·15민족통일대축전·평양, 815민족대축전·서울)에 정갑수실행위원장 일본지역대표위원으로 참가.</p>
2008년	<p>북한 금강산 개최 ‘6·15민족통일대회’에 정갑수 실행위원장이 일본 지역대표위원으로 3년 만에 참가.</p>
2010년	<p>‘재단법인 원코리아페스티벌 설립 준비 심포지엄’ 개최. 패널 다케</p>

	다 세이지 와세다대학 교수, 박원순 한국 ‘희망제작소’ 대표.
2011년	‘일반재단법인원코리아페스티벌’(1월 5일)등기, 정갑수실행위원장이 대표이사 취임. ‘원코리아페스티벌 한국 후원의 밤’(6월 20일) 개최. ‘재단법인원코리아페스티벌 설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2012년	‘원코리아페스티벌 교류콘서트 서울’ (6월 28일) 개최. ‘공익재단법인원코리아페스티벌’ 인정(7월 7일).

위의 <표 3>은 원코리아페스티벌이 1985년 시작된 이후 30년간의 활동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원코리아페스티벌의 활동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초기 남북 원코리아의 취지하에 맞게 민간계와 총련계의 재일코리안을 축제의 포섭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글로벌시대의 도래와 한일 사회적 정치적 배경하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총련계의 재일코리안 참가가 점점 퇴색되고 주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도 민간계와 총련계의 중도파를 중심으로 축제를 이끌어 온 측면이 있다. 이는 반대로 총련계 재일코리안들에게 강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 내 재일코리안 중도파들이 대거 축제에 참여함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참가가 돌보인 반면 북한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는 초기 원코리아달성이라는 초심을 상실한 결과이고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에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일코리안이 동아시아공동체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원코리아의 근본취지와는 동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 원코리아정신과 현재 추진 중인 전 세계 재외동포대상의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부합되고 있지만 재외동포의 세대교체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약화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잘 포용할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표 4> 재일코리안 사회 통일문화운동의 차이

한통련의 ‘통일마당’	원코리아페스티벌
한국 민주화와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념논쟁으로부터 출발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다문화공생사회의 통일비전 구축 목표

<p>통일의 당위성으로서 동질 민족성 제시</p> <p>비판적 시각은 이념의 벽에 갇혀 재일동포 사회 분단 고착화</p> <p>1990년대 이후 ‘통일마당’이라는 문화운동을 통해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운동 전개</p> <p>한반도 통일운동에 관심</p>	<p>일본 내 재일동포의 원코리아에서 출발-남북통일-동아시아공동체-다문화공생사회 실현 목표</p> <p>이념논쟁보다는 문화운동의 성격이 강함</p> <p>재일동포 사회 통일문화운동에 관심</p>
--	--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원코리아페스티벌과 통일마당을 중심으로 운동의 성격과 활동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표 4>은 재일코리안 사회의 원코리아페스티벌과 통일마당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통일마당은 재일코리안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1970-80년대 민주화와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념논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원코리아페스티벌은 1980년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에서 유행하게 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과 다문화공생사회의 통일비전 구축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이들 운동의 주체와 대상은 모두 재일코리안들이었고 운동의 목표로서 통일비전은 비슷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통련의 통일마당과 원코리아페스티벌의 문화운동은 실천적 측면에서 성격을 약간 달리 하고 있다. 먼저 통일마당은 통일의 당위성으로서 남북이 분단국가이지만 동질민족이라는 민족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일마당은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념의 벽에 갇혀 재일동포사회의 분단 고착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통일마당은 문화운동을 통해 재일동포사회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한반도 통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은 1980년대 이후 시대적으로 글로벌화와 다문화공생이라는 화두 속에서 일본 내 재일동포사회의 분열과 통합차원에서 먼저 원코리아에서부터 출발하여 분단국가의 남북통일을 달성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결성과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출발선상에서부터 남북이념논쟁보다는 통일문화운동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통일문화운동으로부터 재일동포사회의 통합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초심의 변질과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논

리적 모순, 일본 내 급격한 재일코리안 세대교체와 동아시아국가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1945년 해방 이후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진행된 통일운동을 고찰하는데 있다. 논문의 분석대상은 1970년대 이후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진행된 한통련의 통일운동과 ‘통일마당’ 축제, 1980년대 이후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출현한 문화운동으로서 원코리아페스티벌, 그리고 2000년대 발생한 6·15 남북공동선언과 NPO법인 삼천리철도의 통일운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통련 주체의 통일운동은 민족성에 의한 분단이념이나 제도의 극복을 주장했지만 이념의 벽을 초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통련 주최의 통일마당은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한 분단의 벽을 초월한 한민족 축제로 발전시켰다. 1970년대부터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출현한 한통련의 통일운동은 한국의 군사독재와 민주화운동, 더 나아가 재일코리안 사회의 민단계 한청과 총련계 조청까지를 아우르는 통일운동으로 전개되었지만 한국정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통련은 통일운동의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남북연방제나 ‘선민주·후통일’을 주장하여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운동과 정반대이고 이로 인해 한통련이 ‘친북단체’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통련의 통일운동은 남북이념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시작된 ‘통일마당’ 축제는 이념을 초월하여 남과 북, 민단과 총련, 일본시민까지 참가하는 재일코리안 통일문화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재일코리안 사회의 통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둘째, 재일코리안 단체인 NPO법인 삼천리철도의 통일운동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통일비전을 실현할만한 독립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삼천리 철도의 통일운동은 재일코리안 사회의 민단과 총련단체를 대신하여 한때 비무장지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모금과 남북전달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2007년 이후 남북 정치적 대

립의 격화와 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2000년 이후 통일무드에서 재일코리안 단체로 활발한 통일운동으로 전개하였지만 남북관계와 조일관계의 정세를 넘지 못하는 통일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원코리아페스티벌은 1985년부터 재일동포 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먼저 재일동포가 하나가 되고 남북과 재외동포가 하나가 되어 세계시민과 동북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재일동포 사회에서 출발선상에서부터 통일운동 이념의 실천적 성격보다는 문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초기 원코리아 달성목표의 초심이 변질되고 일본 내 급격한 재일코리안 세대교체와 동아시아국가의 정세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침체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또 하나의 분단사회로 남아 있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통일운동을 통하여 향후 통일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한통련의 통일마당과 원코리아페스티벌의 통일문화운동은 글로벌시대 초기에는 이념을 탈피한 문화운동으로 전개되어 일본사회와 재일코리안들로부터 주목받았지만 다문화시대에는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축제로의 탄생과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하겠다. 이는 향후 재일코리안 통일문화운동의 방향성은 초심의 유지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일본 내 재일동포는 물론이고 재외동포를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적 통일운동의 전개가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중원외(2000) 「21세기 원코리아와 동아시아: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해외코리안의 역할」 『통일한국』 pp.81-82.
- 임영언외(2013)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본 북한-총련-일본 관계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제1호, pp.279-304.
- 임영언외(2013) 「재일코리안의 사회문화운동 전개과정 고찰: 사회운동에서 문화운동으로」 『한국일본문화학보』 제58집, pp.341-363.
- 지충남(2013) 「재일동포와 원코리아 페스티벌: 통일과 공생의 기제」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pp.139-184.

- 지충남(2015) 「재일코리안 사회의 통일운동」 『민족연구』 64호, pp.157-195.
- 진희관(2001) 「재일동포들의 축제」 『통일한국』 11월호, pp.78-80.
- 정병호(2002) 「세시와 놀이」, 국립민속박물관 『일본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과 문화』 서울: 국립박물관, pp.285-308.
- 鄭甲壽(2005) 『<ワンコリア>風雲録-在日コリアンたちの挑戦』 岩波ブックレット。
- 鄭甲壽(2015) 『ハナ: ワンコリア道草回顧録』 ころから。
- 飯田剛史(2002)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 世界思想社。
공익재단원코리아페스티벌:
<http://hana.wwonekorea.com/okf2012/profile.htm>(검색일: 2015년 11월 3일).
- 주간 한국뉴스: <http://chuo.korea-htr.org/>(검색일: 2015년 11월 3일).
- 재일한국 민주통일연합: <http://chuo.korea-htr.org/history.shtml>(검색일: 2015년 11월 3일).
- 통일마당 도쿄: <http://chuo.korea-htr.org/>(검색일: 2015년 11월 3일).
- 民団系在日朝鮮人の韓国民主化運動:
http://www.tufs.ac.jp/common/is/kyoumu/pg/pdf/190_CHO_KIEUN_youshi.pdf#search(검색일: 2015년 11월 3일).
- 希望は鉄馬から~分断の痛みを共にして来た在日は、平和統一の歩みを共にする権利がある:
<http://www.sanzenri.gr.jp/library/gideok-02-k.pdf#search='gideok02>
(검색일: 2015년 11월 3일).
- NPO법인 삼천리 철도 경력: <http://www.sanzenri.gr.jp/houjin/sanzenri.pdf>(검색일: 2015년 11월 4일).
- 원코리아 페스티벌 30주년을 맞이하여: <http://hana.wwonekorea.com/>(검색일: 2015년 11월 3일).

논문 투고 일자 : 2016.03.17.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

< 要 旨 >

在日コリアン社会の韓統連の統一마당とワン코리아フェスティバル統一文化運動に関する考察

金泰永 · 林永彦

本研究の目的は在日コリアン社会における統一運動を考察することである。論文の分析対象は韓国統一連盟の統一運動と統一마당祭り、ワン코리아フェスティバルによる統一文化運動である。本論文の分析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第一に、韓国統一連盟の統一運動は民族性による分断理念や制度的な思想の克服を主張したが、南北理念の壁を破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第二に、在日コリアン団体である三千里鉄道の統一運動は2000年6月南北共同宣言によって在日コリアン社会で当時の統一ビジョンを実現できるような独立機構がなかったことから出発した。しかし、時代的な国際情勢の変化によって衰退している。第三に、ワン코리아フェスティバルは1985年からまず在日コリアン社会が一つになり、南北統一を目指し、東北アジア共同体を構築するというビジョンをもっていた。しかし、このビジョンの実現は未だに遙かなる夢に留まっている。結論的に在日コリアンの統一文化運動は出発当時の初心の変質と時代の変化を反映できなかったため難しい状況におかれている。したがって、在日コリアンの統一文化運動はたゆまぬ自己改革と変化を通して新しい時代にふさわしい祭りとして新たに誕生するであろうと考えられる。

A Study on the Unification Madang of Hantongnryeon and Unification Cultural Movement of One Korea Festival in the Zainichi Korean Society

Kim, Tae-Young · Yim, Young-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chools, school typology, the operation process of students living abroad within Japan's educational policy, Japanese students within Nikkeijin's educational policy, and students Korean studying abroad within Japan's educational poli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apan's government's overseas educational facility is recognized by the School of Educational Law observance, Japanese domestic educational method observance and course of study preservation on condition. Second, Japanese type schools have Japanese groups or Japanese business operations in the schools, and there are schools which Japanese domestic corporations establish. Third, educational policy of Japanese foreigners regarded as temporary residents stick to assimilationism. But it is showing a social integration movement to secure public education for the latest Japanese society member. Fourth, Nikkeijin School pattern of Japanese domestication was classified by three patterns of experiences of teachers, Japanese enterprisers, and the establishment of Brazil school law.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Diaspora school pattern was decided in relation with the group's strategy, relationship of mother country's government, and private purpose.